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3년 12월 생산은 전월대비 0.3% 증가(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1.1%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 화학제품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늘어 전월 대비 0.6% 증가함(전년동월대비 6.7%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협회·수리·개인 등에서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2% 증가).

◆ 2023년 12월 소비는 전월대비 0.8%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5%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0.8% 감소함(전년동월대비 2.2% 감소).
-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3.2%)에서 투자가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8.9%)에서 투자가 늘어 전월대비 5.5%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9%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7%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67.1% 증가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0	2021	2022	2021				2022				2022	2023	
					1/4	2/4	3/4	4/4	1/4	2/4	3/4	4/4	12월	11월p	12월p
생산	전산업	-1.2	5.3	4.6	1.8	1.0	0.6	2.6	1.6	0.8	0.4	-1.5	0.0	0.8(2.8)	0.3(1.1)
	광공업	-0.3	8.2	1.4	3.3	-1.3	1.7	2.9	3.2	-2.3	-2.4	-6.4	-3.5	3.6(5.5)	0.6(6.2)
	제조업	-0.2	8.4	1.4	3.4	-1.5	1.6	3.1	3.2	-2.2	-2.6	-6.7	-4.0	3.6(5.6)	0.6(6.7)
	건설업	-2.1	-6.7	2.7	-2.9	-3.3	-0.6	2.4	0.5	-0.1	0.8	4.6	-1.9	-3.3(2.2)	-2.7(-1.2)
	서비스업	-2.0	5.0	6.7	1.2	2.2	0.3	2.6	0.8	2.9	1.7	0.1	1.8	0.0(2.3)	0.3(0.2)
소비	소비재 판매	-0.1	5.8	-0.3	2.9	1.5	1.1	0.5	-0.7	-1.0	0.3	-0.9	0.6	0.9(-0.4)	-0.8(-2.2)
투자	설비투자	5.9	9.6	3.3	6.3	1.4	-1.7	-0.4	0.4	-0.4	8.6	-0.2	-6.1	-2.5(-11.9)	5.5(-5.9)
물가		0.5	2.5	5.1	1.3	0.5	0.7	1.0	1.5	2.1	1.1	0.4	0.7	0.0(3.2)	0.4(2.8)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1월, 2023년 12월, 2024년 1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6%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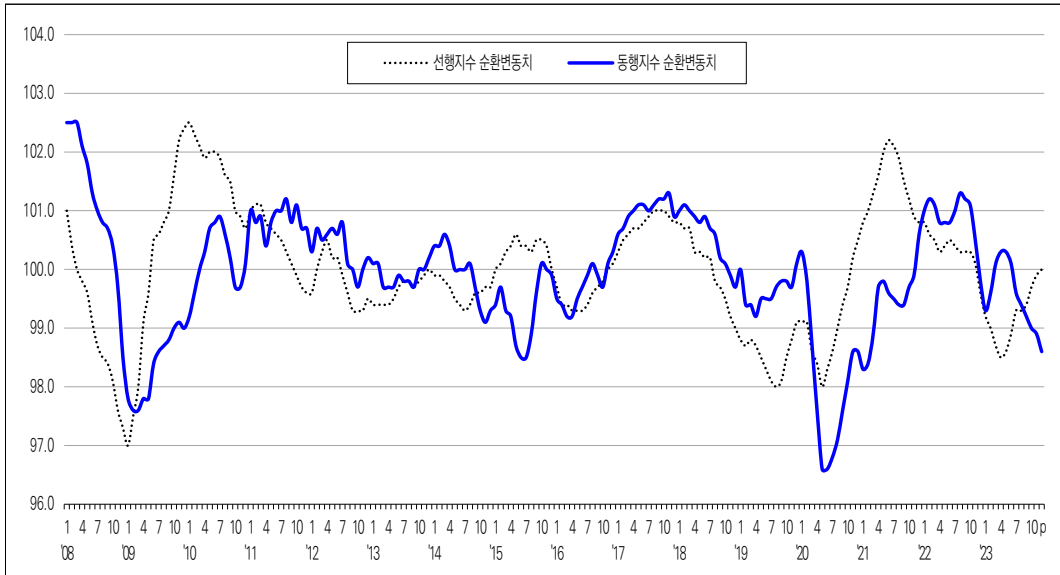
○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함(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식료품·비주류음료(1.4%), 기타 상품·서비스(2.4%), 보건(1.1%), 교육(0.4%), 음식·숙박(0.2%), 주택·수도·전기·연료(0.1%)는 상승, 의류·신발, 통신, 오락·문화는 변동 없으며, 주류·담배(-0.6%), 가정용품·가사서비스(-0.2%), 교통(-0.8%)은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9%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상승함.

◆ 2023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감소,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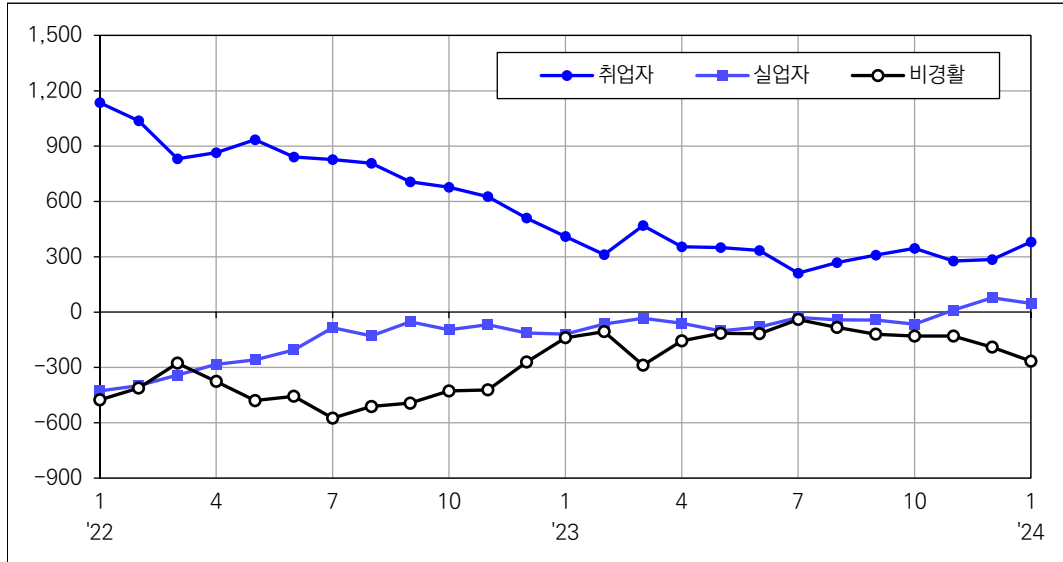
고용 동향

◆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실업자 다시 감소

○ 2024년 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 명 증가하여 전월보다 약 10만 명 증가함(전월대비) 8만 2천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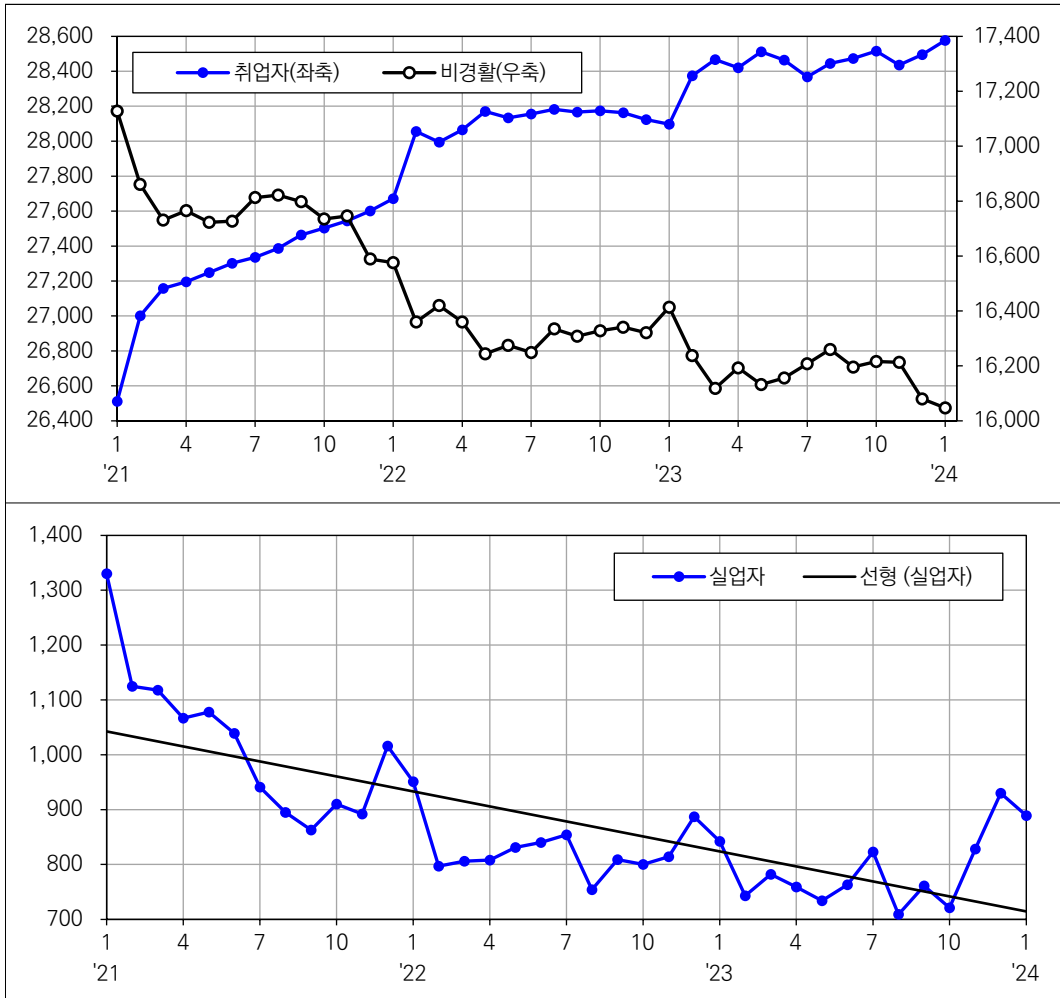
- (산업별) 1월은 제조업에서는 전월대비 취업자가 감소하여 부진이 지속됨. 서비스업의 경우 70대 이상 고령층 중심의 공공행정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사회복지업은 60세 이상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으로 취업자가 증가함.
- (연령별) 전월대비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 전월대비 보건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1월 실업자는 4만 8천 명 증가. 12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됨(12월 +7만 8천 명). 전월대비 공공행정업과 건설업에서 실업자가 감소함.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26만 7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확대됨(12월 -19만 명).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1월은 전월대비 50대와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50대 후반 여성과 50대 초반 남성에서 고용률이 증가세를 보였음. 50대 후반 여성의 경우 보건사회복지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50대 초반 남성은 제조업과 운수창고업, 전문과학에서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은 여성은 연령과 상관없이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60세 초반에서 증가하였음.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주로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고, 60세 초반 남성은 전문과학,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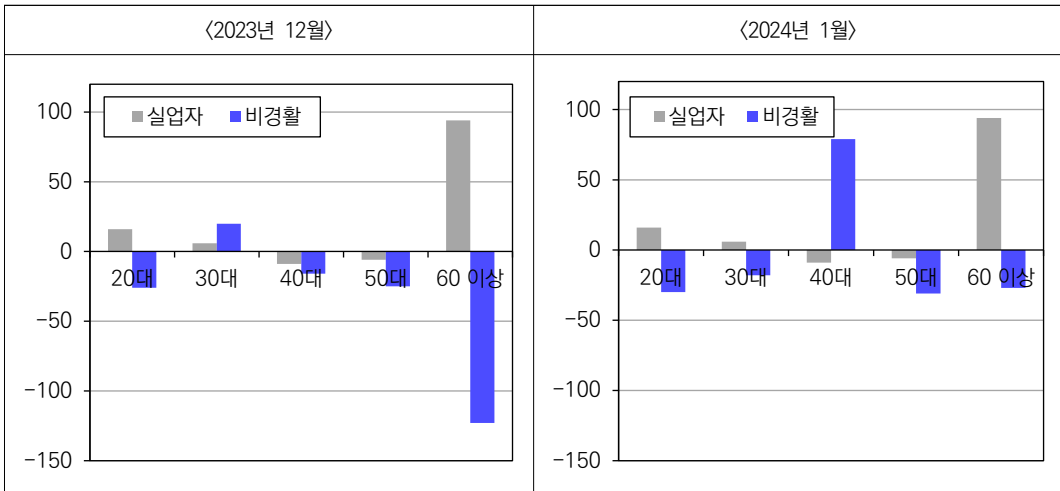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취업자	-23	-22	-38	(-16)	-44	-51	-48	(3)	80	64	86	(22)
실업자	2	1	-6	(-7)	-26	8	5	(-3)	7	19	19	(0)
비경황	34	34	24	(-10)	-116	-136	156	(-20)	-133	-122	-118	(4)
실업률	2.1	1.1	-1.1	(-2.2)	-0.6	0.3	0.1	(-0.2)	0.0	0.3	0.2	(-0.1)
고용률	-1.0	-1.1	-1.6	(-0.5)	1.1	1.0	1.2	(0.2)	1.7	1.4	1.4	(0.0)
	40대				50대				60세 이상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11월	12월	1월	(전월비)
취업자	-62	-19	-41	(-22)	36	34	71	(37)	291	279	350	(71)
실업자	0	-12	-2	(10)	18	15	-2	(-17)	11	46	35	(-11)
비경황	-78	-112	-91	(21)	-22	-9	-18	(-9)	186	156	94	(-62)
실업률	0.0	-0.2	0.0	(0.2)	0.3	0.2	0.0	(-0.2)	0.1	0.5	0.2	(-0.3)
고용률	0.6	1.2	0.8	(-0.4)	0.2	0.0	0.4	(0.4)	0.5	0.5	1.1	(0.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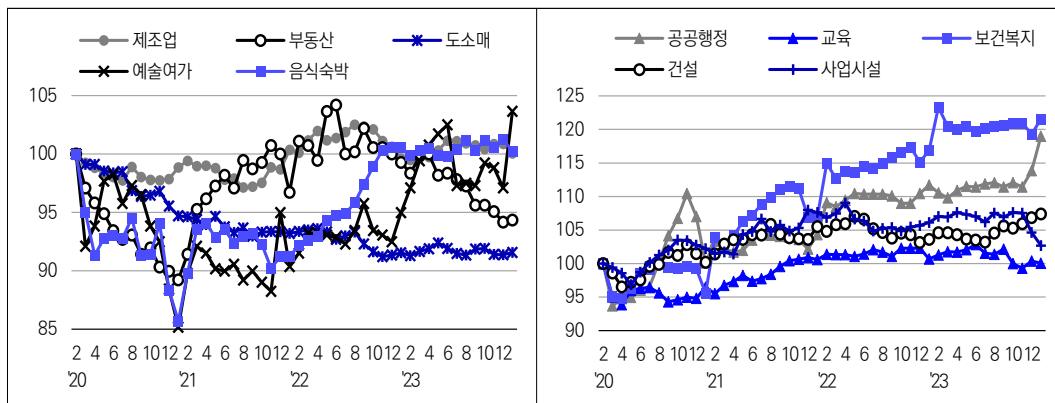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예술여가, 보건복지,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으며, 부동산업, 교육서비스, 사업시설임대 등에서는 감소하였음. 음식숙박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은 취업자 증가세가 정체됨.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2	-25	-7	-4	-24	18	-10	-0.7
광업	1	1	-1	0	-1	-1	-2	-25.0
제조업	-11	10	20	19	1	-36	-16	-0.4
전기·가스·증기	8	6	9	-4	0	4	0	0.0
수도·원료재생	1	-3	0	6	-1	-3	2	1.4
건설업	32	71	73	13	18	11	42	2.0
도매 및 소매업	7	0	0	-18	-1	7	-12	-0.4
운수 및 창고업	36	27	66	-5	-9	13	-1	-0.1
숙박 및 음식점업	7	17	-8	-13	15	-24	-22	-1.0
정보통신업	54	87	49	-16	21	-7	-2	-0.2
금융 및 보험업	10	1	-13	-4	-1	6	1	0.1
부동산업	-30	-32	-28	-3	-5	1	-7	-1.3
전문·과학·기술	89	47	73	24	-23	18	19	1.4
사업시설관리지원	28	-14	-45	-1	-39	-26	-66	-4.6
공공행정·사회보장	26	34	71	-7	27	57	77	6.2
교육서비스업	-57	-35	-13	-13	20	-6	1	0.1
보건 및 사회복지	85	94	104	3	-40	55	18	0.6
예술·스포츠·여가	30	23	42	-2	-9	34	23	4.5
협회·단체·수리·기타	-16	-5	8	-3	7	8	12	1.1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17	-15	-18	-7	8	0	1	1.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2024년 1월은 전월대비 임시직이 증가하였고, 상용직과 일용직은 감소로 전환함.

- 상용직은 사업관리지원과 협회단체에서 감소로 전환하였음. 임시직은 공공행정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증가하였으며, 일용직의 경우 제조업, 부동산, 교육서비스에서 증가하였음.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상용직	419	390	320	-4	4	-34
임시직	25	11	137	-51	-47	44
일용직	-107	-69	-82	3	24	-3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81	45	30	5	-16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78	-41	-1	24	-25	13
무급가족종사자	63	-50	-25	0	-26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11월	12월	1월
농림어업	4	3	6	-2	2	2	-14	-8	1	16	0	5	4	8	7
제조업	-39	-17	-30	5	2	7	8	8	13	19	14	15	2	4	13
건설업	36	35	44	31	20	16	-64	-19	-27	12	15	15	12	16	19
도소매	74	64	71	-53	-58	-30	-4	3	-14	8	-5	-17	-19	-15	-18
운수창고	42	27	37	7	13	23	-10	-15	-11	6	8	7	-8	-4	12
음식숙박	15	14	4	52	34	8	-9	-2	-11	10	13	10	-25	-25	-13
정보통신	10	44	21	21	26	23	5	0	-1	3	2	2	17	16	5
금융보험	-9	-19	-19	14	15	3	-4	-1	0	1	1	-1	7	4	3
부동산	-2	-13	-12	-19	-17	-23	-1	-1	3	7	5	3	-16	-8	-1
전문과학기술	98	66	89	-1	-4	-6	-3	-6	-3	12	7	11	-19	-19	-20
사업관리지원	39	24	-6	-17	-16	-10	12	0	-8	-2	-9	-15	2	-8	-3
공공행정	11	22	47	14	13	28	0	-1	-4	-	-	-	-	-	-
교육서비스	26	40	29	-57	-57	-39	-2	-8	3	0	0	1	-20	-6	-6
보건복지	69	58	16	27	40	90	-1	2	4	-16	-10	-9	5	3	3
예술스포츠	15	15	14	18	16	31	0	-6	-10	4	0	1	-8	-1	5
협회단체	10	11	-4	4	7	28	-16	-12	-7	0	1	0	-11	-10	-6
가구 내 고용	2	2	-1	-15	-18	-12	-4	0	-7	-	-	-	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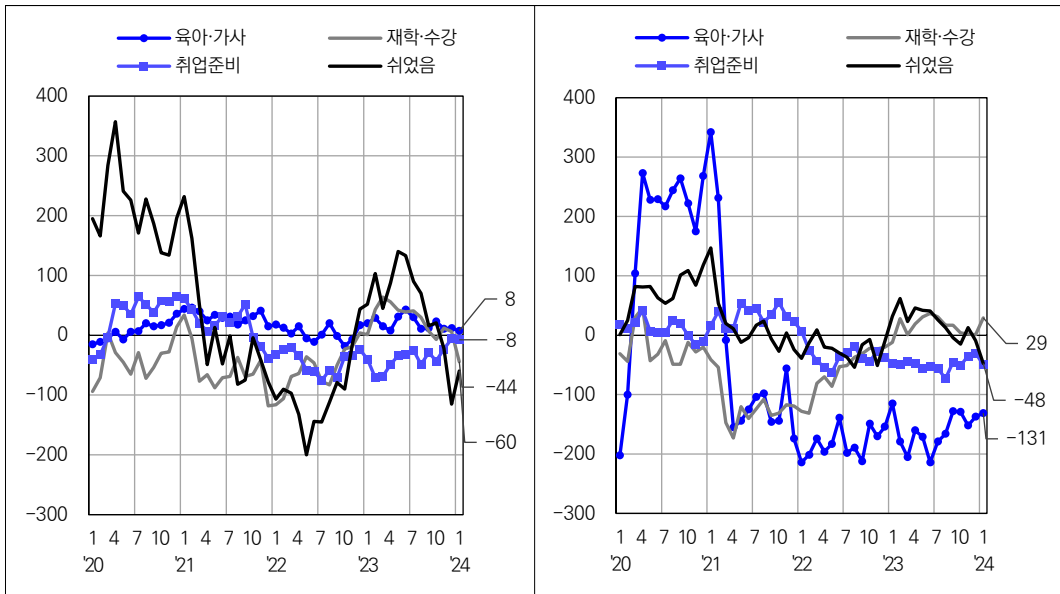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6만 7천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됨.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3만 9천 명으로 '통학'(-4만 4천 명)에서 감소로 전환하였고, 여성은 -22만 8천 명으로 '쉬었음'(-4만 8천 명)에 감소폭이 확대되었음.

[그림 4]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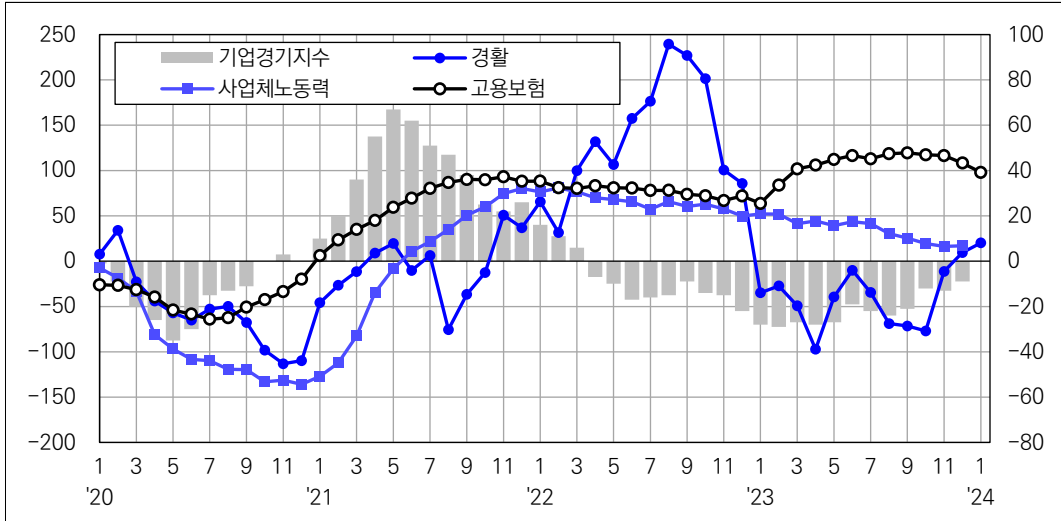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 지속

○ 2024년 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나, 지난해 기저 범위에는 미치지 못한 규모임(12월 +1만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1만 1천 명 감소하여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3만 6천 명 감소하였음.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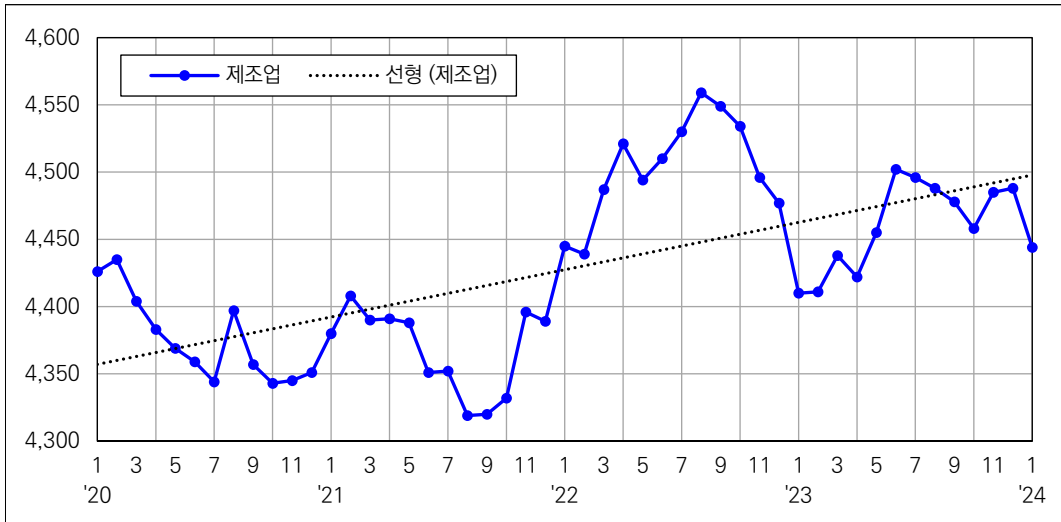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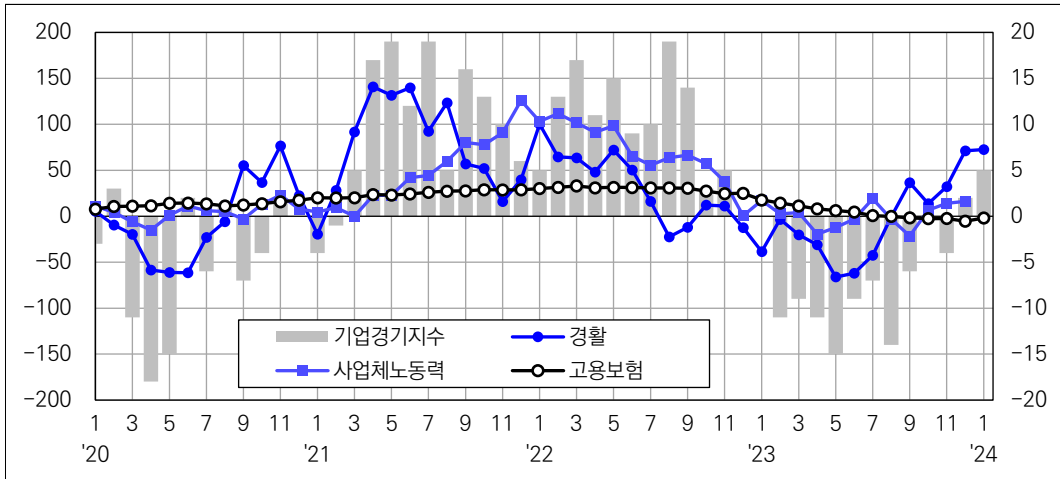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1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 건설업 피보험자는 5개월 연속 감소 중이나, 사업체 종사자와 경황 취업자 모두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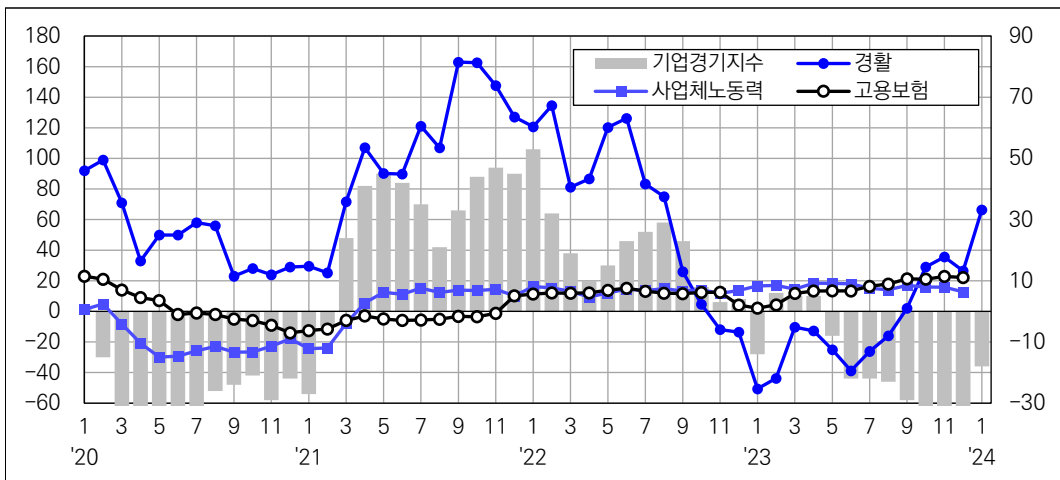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4년 1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31만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지속됨(12월 +23만 4천 명).
 - (운수창고)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폭이 소폭 확대됨.
 - (금융보험) 경찰 취업자와 생산지수는 감소로 전환되었음.
 - (사업시설) 경찰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됨.
 - (공공행정) 경찰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그림 8] 운수 및 창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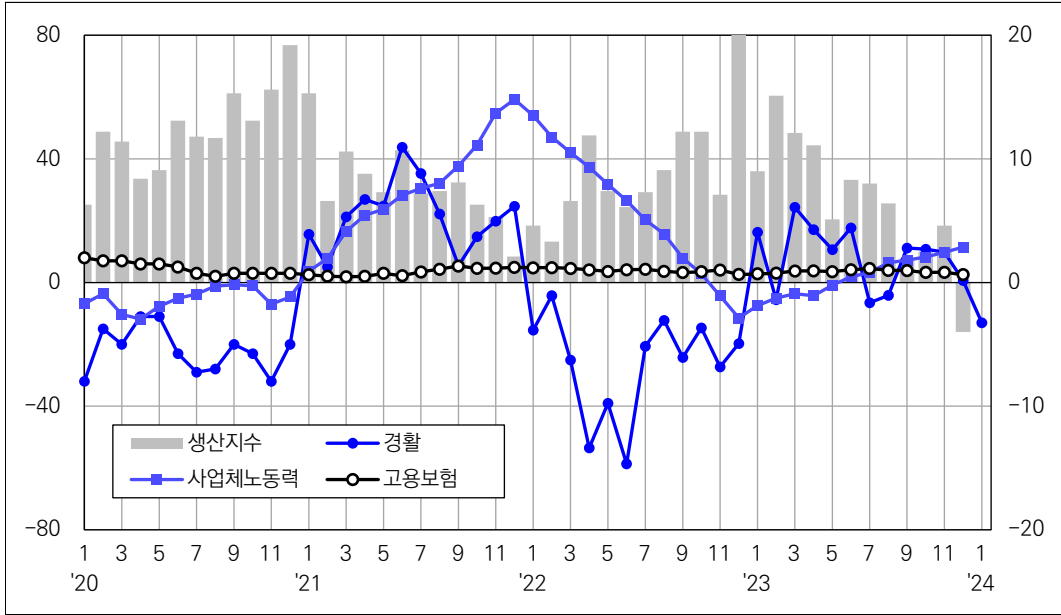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9]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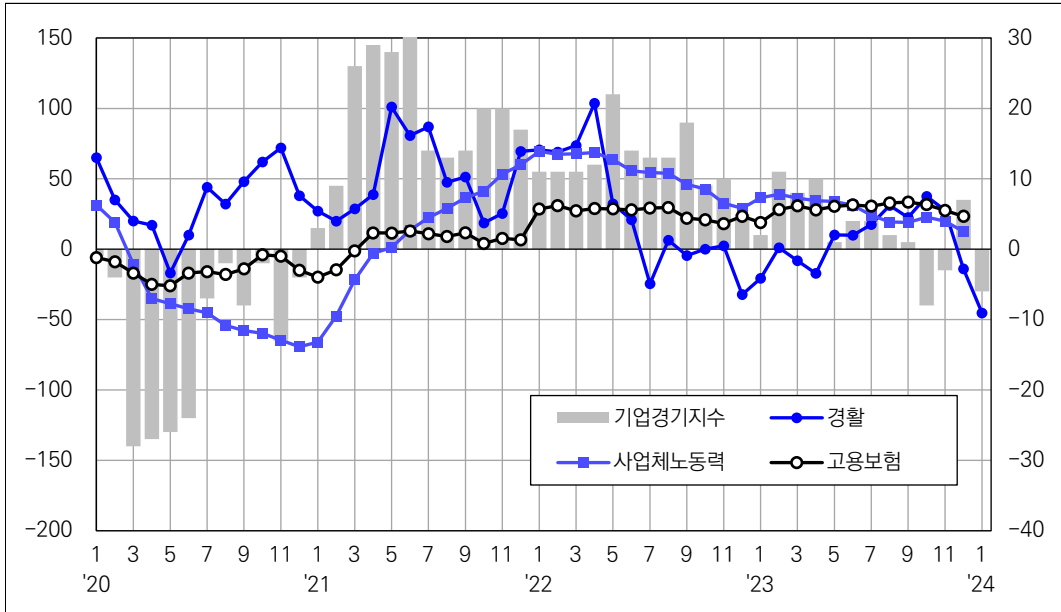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0]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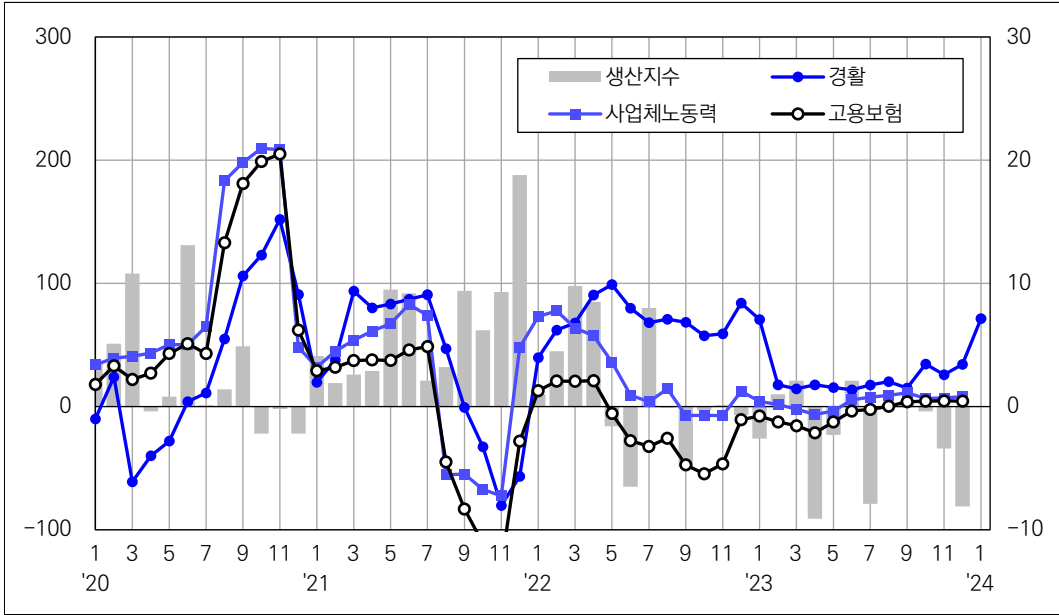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3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2023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71만 4천 원(3.6%)임.
 - 2023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93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86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폭 둔화는 정액급여증가율의 둔화 영향이 큼. 정액급여증가폭(-1.0%p) 둔화는 건설업(-3.0%p), 정보통신업(-2.6%p), 제조업(-1.2%p) 부문에서 컸던 것으로 나타남.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0.3% 증가함.

◆ 2023년 1~11월 평균 명목임금상승률은 2.8%(-2.4%p), 실질임금상승률은 -0.9%(-1.2%p)

◆ 2023년 11월 협약임금인상률(4.5%, 임금총액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공공부문은 2.2%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함.
 - ※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전사업체(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 초·중·고 교육기관은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교섭에 따라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를 제외한 임금인상률임.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19	2020	2021	2022	2022		2023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490 (3.4)	3,527 (1.1)	3,689 (4.6)	3,869 (4.9)	3,818 (5.1)	3,585 (4.5)	3,923 (2.8)	3,714 (3.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02 (3.1)	3,719 (0.4)	3,893 (4.7)	4,095 (5.2)	4,038 (5.4)	4,164 (3.1)	3,930 (3.8)
	정액급여	3,010 (4.1)	3,077 (2.2)	3,181 (3.4)	3,319 (4.3)	3,300 (4.3)	3,316 (4.5)	3,426 (3.8)
	초과급여	202 (2.7)	200 (-0.9)	208 (3.7)	220 (5.7)	219 (5.7)	222 (5.3)	226 (3.1)
	특별급여	490 (-2.8)	441 (-9.9)	504 (14.3)	556 (10.4)	518 (12.8)	247 (8.0)	511 (-1.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517 (6.2)	1,636 (7.8)	1,700 (3.9)	1,747 (2.8)	1,742 (2.8)	1,764 (2.9)	1,777 (2.0)	1,860 (5.4)
소비자물가지수	105.1 (0.4)	105.7 (0.5)	104.0 (2.5)	109.3 (5.1)	107.6 (5.1)	109.1 (5.0)	111.5 (3.6)	112.7 (3.3)
실질임금증가율	3.0	0.5	2.0	-0.2	0.0	-0.5	-0.9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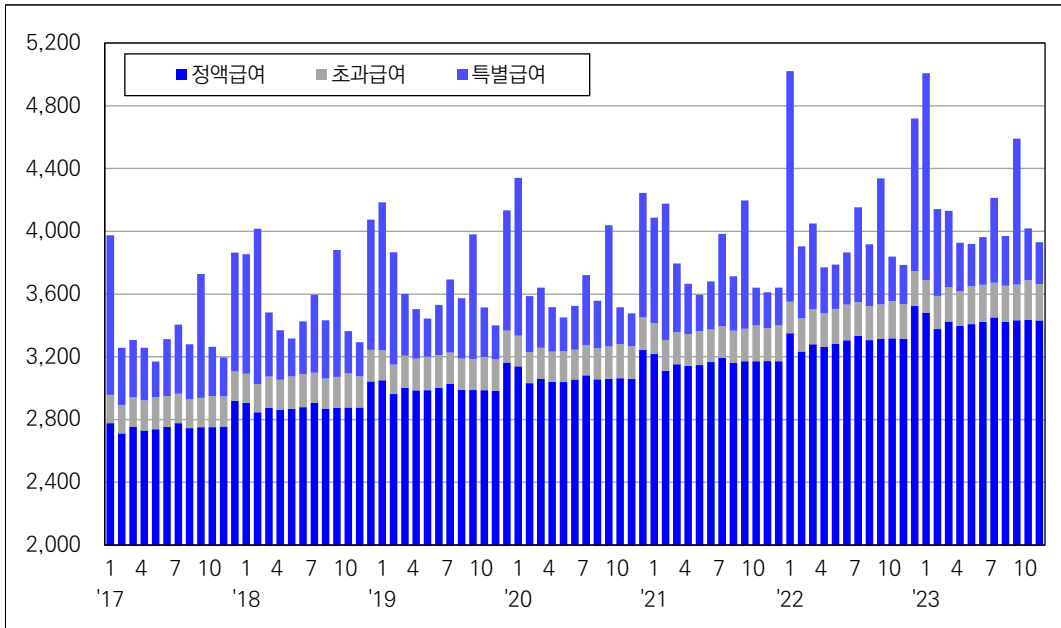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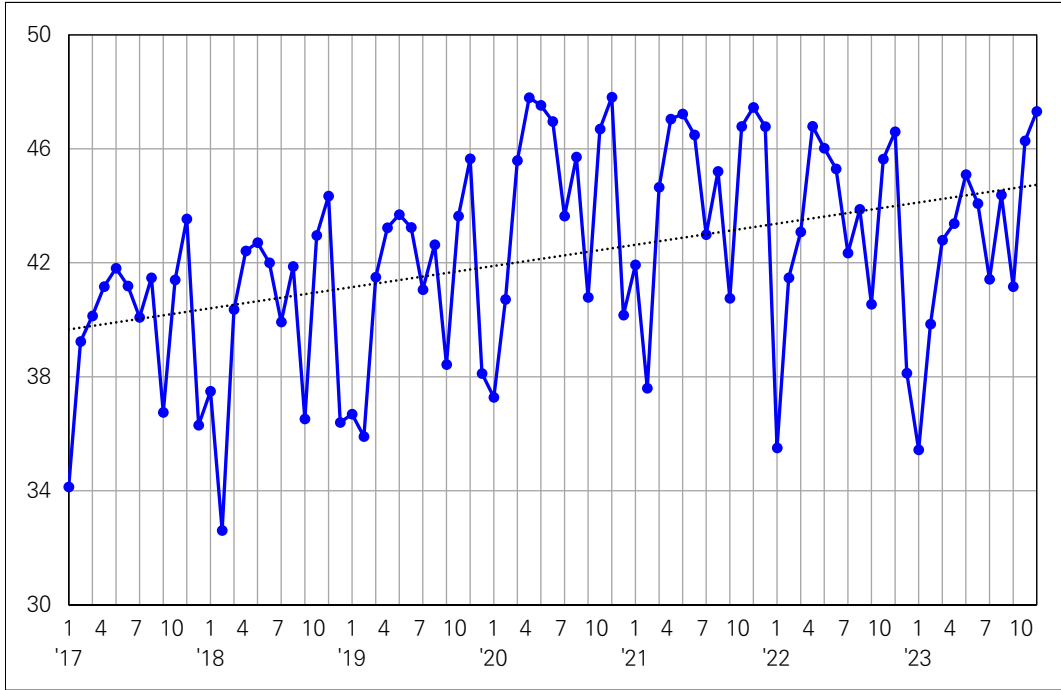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1월 중소기업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둔화

○ 2023년 11월 중소기업(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38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531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함.²⁾

-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의 특별급여는 감소함.
- 중소기업의 임금상승폭 둔화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증가,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특별급여 지급시기 변경 및 축소 등에 기인함.
-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5.6%, 1.9% 상승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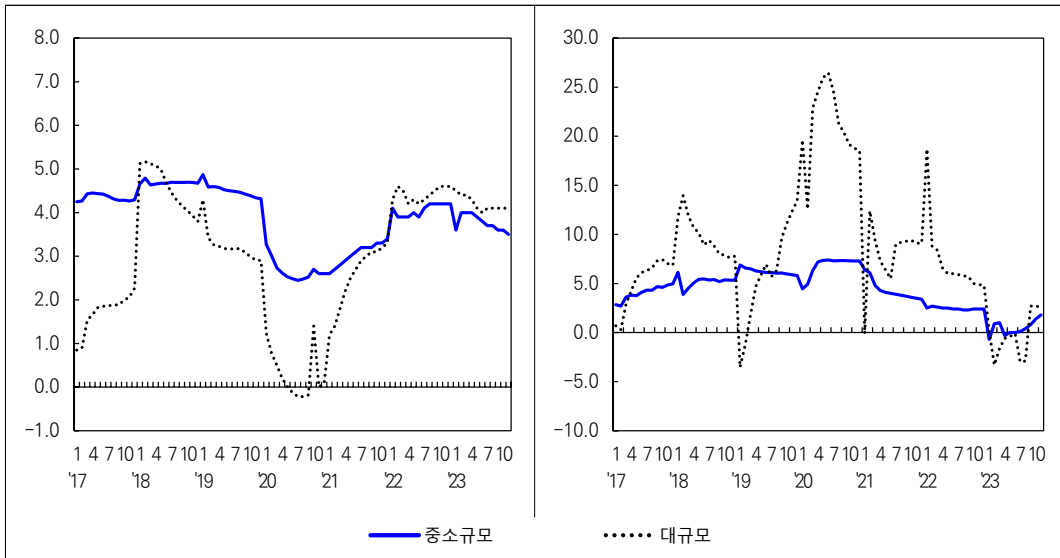
		2021	2022	2022		2023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소 계	3,316 (3.8)	3,462 (4.4)	3,419 (4.3)	3,296 (4.1)	3,500 (2.3)	3,387 (2.8)
	상용임금총액	3,510 (3.9)	3,675 (4.7)	3,627 (4.6)	3,492 (4.4)	3,726 (2.7)	3,594 (2.9)
	정액급여	3,012 (3.4)	3,139 (4.2)	3,125 (4.2)	3,141 (4.3)	3,235 (3.5)	3,241 (3.2)
	초과급여	176 (2.9)	186 (5.7)	185 (5.7)	187 (4.7)	187 (0.6)	191 (2.1)
	특별급여	322 (10.4)	350 (8.7)	316 (8.2)	164 (5.7)	304 (-3.9)	162 (-1.0)
	임시일용임금총액	1,671 (3.4)	1,711 (2.4)	1,707 (2.4)	1,741 (2.8)	1,738 (1.8)	1,839 (5.6)
대규모	소 계	5,582 (6.5)	5,922 (6.1)	5,828 (7.3)	5,031 (5.6)	5,998 (2.9)	5,319 (5.7)
	상용임금총액	5,687 (6.6)	6,049 (6.4)	5,951 (7.6)	5,137 (5.8)	6,137 (3.1)	5,446 (6.0)
	정액급여	3,973 (3.3)	4,155 (4.6)	4,117 (4.6)	4,121 (5.2)	4,288 (4.1)	4,293 (4.2)
	초과급여	357 (5.1)	377 (5.5)	378 (5.5)	384 (5.9)	405 (7.3)	416 (8.4)
	특별급여	1,357 (18.1)	1,516 (11.8)	1,457 (17.5)	632 (10.0)	1,444 (-0.9)	737 (16.6)
	임시일용임금총액	2,214 (9.1)	2,321 (4.8)	2,306 (4.9)	2,126 (4.0)	2,367 (2.6)	2,168 (1.9)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주: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1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23년 11월 임금이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산업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2%), 제조업(5.6%), 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5.3%) 순으로 나타남.
 - 이 산업들의 임금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건설업(74.0%), 숙박 및 음식점업(58.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3.6%), 제조업(22.7%).
- 2023년 11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616만 9천 원)이고, 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8만 2천 원)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21	2022	2022		2023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3,689 (4.6)	3,869 (4.9)	3,818 (5.1)	3,585 (4.5)	3,923 (2.8)	3,714 (3.6)
광업	4,415 (2.1)	4,608 (4.4)	4,579 (4.0)	4,529 (4.6)	4,632 (1.2)	4,651 (2.7)
제조업	4,239 (6.2)	4,484 (5.8)	4,415 (6.5)	4,020 (5.2)	4,576 (3.7)	4,246 (5.6)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53 (0.3)	6,907 (2.3)	6,691 (2.0)	5,388 (1.1)	7,104 (6.2)	5,666 (5.2)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094 (5.3)	4,168 (1.8)	4,063 (2.0)	4,003 (2.3)	4,211 (3.6)	3,943 (-1.5)
건설업	3,106 (2.4)	3,229 (4.0)	3,212 (4.1)	3,181 (3.6)	3,346 (4.2)	3,350 (5.3)
도매 및 소매업	3,551 (3.7)	3,773 (6.3)	3,713 (6.0)	3,601 (7.1)	3,878 (4.4)	3,721 (3.3)
운수 및 창고업	3,795 (7.5)	4,040 (6.5)	3,926 (6.4)	3,716 (9.6)	4,111 (4.7)	3,755 (1.1)
숙박 및 음식점업	1,905 (1.4)	2,004 (5.2)	1,998 (5.4)	1,977 (3.1)	2,089 (4.6)	2,082 (5.3)
정보통신업	4,796 (4.0)	4,999 (4.2)	4,935 (3.9)	4,714 (5.1)	5,055 (2.4)	4,784 (1.5)
금융 및 보험업	6,963 (6.7)	7,324 (5.2)	7,147 (4.9)	6,154 (4.3)	7,151 (0.0)	6,169 (0.2)
부동산업	2,954 (3.7)	3,086 (4.5)	3,062 (4.7)	2,925 (3.0)	3,104 (1.4)	3,002 (2.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106 (4.8)	5,376 (5.3)	5,266 (5.8)	4,811 (2.8)	5,369 (1.9)	5,036 (4.7)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492 (3.4)	2,584 (3.7)	2,563 (3.6)	2,523 (4.1)	2,665 (4.0)	2,642 (4.7)
교육서비스업	3,355 (-0.3)	3,435 (2.4)	3,436 (2.3)	3,187 (2.9)	3,513 (2.2)	3,280 (2.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14 (2.5)	3,122 (3.6)	3,109 (3.7)	3,033 (3.4)	3,119 (0.3)	3,069 (1.2)
여가 관련 서비스업	2,994 (4.2)	3,077 (2.8)	3,038 (2.7)	2,918 (3.6)	3,036 (-0.1)	2,921 (0.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700 (5.4)	2,832 (4.9)	2,814 (4.9)	2,710 (4.4)	2,992 (6.3)	2,878 (6.2)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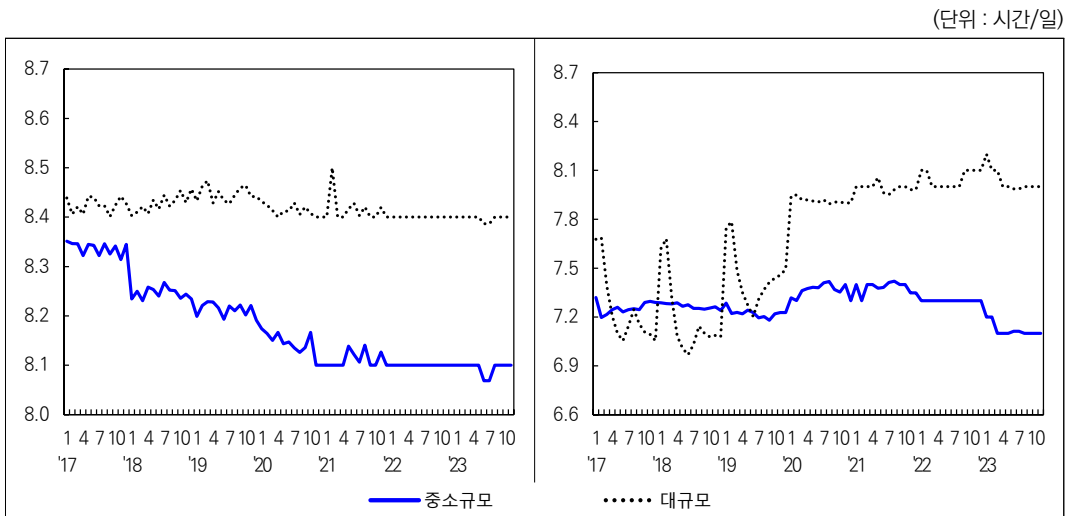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3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과 동일)

- 2023년 11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4.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시간 감소,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2.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6.7시간 감소함.
 -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월력상 근로일수가 19일로 전년동월과 동일함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함.
 -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3년 11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기업은 164.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는 17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시간 감소함.
 -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이 대규모 사업체보다 크게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3 (0.1)	158.3(-1.2)	157.6(-1.0)	167.3(-0.5)	155.6(-1.3)	164.5(-1.7)
	상용 총근로시간	167.8 (0.1)	165.9(-1.1)	165.0(-1.0)	176.1(-0.3)	164.3(-0.4)	174.4(-1.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0.1 (0.2)	158.2(-1.2)	157.3(-0.9)	168.6(-0.2)	157.0(-0.2)	167.0(-0.9)
	상용 초과근로시간	7.7(-1.3)	7.7(0.0)	7.7(0.0)	7.6(0.0)	7.3(-5.2)	7.4(-2.6)
	임시일용 근로시간	97.4 (1.4)	96.4(-1.0)	96.3(-0.7)	97.3(-2.1)	88.1(-8.5)	90.6(-6.9)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2.3(-0.3)	160.4(-1.2)	159.8(-1.0)	170.9(0.4)	160.9(0.7)	170.7(-0.1)
	상용 총근로시간	163.4(-0.3)	161.7(-1.0)	161.0(-0.9)	172.4(0.5)	162.6(1.0)	172.7(0.2)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2.3(-0.5)	150.6(-1.1)	149.9(-0.9)	161.5(0.5)	151.3(0.9)	161.4(-0.1)
	상용 초과근로시간	11.1(1.8)	11.0(-0.9)	11.1(0.0)	10.9(0.0)	11.3(1.8)	11.2(2.8)
	임시일용 근로시간	127.9(2.2)	125.0(-2.3)	124.9(-2.2)	129.4(-1.7)	117.5(-5.9)	121.1(-6.4)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3년 1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3년 11월 대부분의 산업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6%), 광업(1.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0.2%), 교육서비스업(0.1%), 정보통신업(0.1%)은 근로시간이 증가함.
- 2023년 1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광업(185.4시간), 제조업(182.4시간) 순이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9시간)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21	2022	2022		2023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160.7(0.1)	158.7(-1.2)	158.0(-1.0)	167.9(-0.4)	156.5(-0.9)	165.6(-1.4)
광업	179.9(-0.7)	174.8(-2.8)	174.1(-2.6)	182.6(-1.5)	168.5(-3.2)	185.4(1.5)
제조업	173.5(0.5)	171.1(-1.4)	170.2(-1.3)	182.8(-0.2)	170.8(0.4)	182.4(-0.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1.6(-1.3)	158.6(-1.9)	157.9(-1.9)	168.0(1.4)	159.9(1.3)	175.7(4.6)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6.9(0.2)	174.4(-1.4)	173.6(-1.1)	183.0(-1.0)	170.2(-2.0)	179.0(-2.2)
건설업	135.9(-0.7)	134.3(-1.2)	133.9(-0.8)	139.0(-1.9)	128.9(-3.7)	135.9(-2.2)
도매 및 소매업	163.8(0.0)	162.3(-0.9)	161.6(-0.7)	171.7(0.3)	159.6(-1.2)	168.7(-1.7)
운수 및 창고업	160.2(0.8)	160.6(0.2)	159.8(0.3)	169.0(1.1)	160.8(0.6)	167.7(-0.8)
숙박 및 음식점업	148.4(-0.9)	146.5(-1.3)	146.1(-1.0)	151.7(-1.9)	138.9(-4.9)	143.3(-5.5)
정보통신업	164.1(0.2)	162.7(-0.9)	162.0(-0.6)	173.9(0.1)	162.8(0.5)	174.1(0.1)
금융 및 보험업	161.9(-0.1)	159.8(-1.3)	159.0(-1.0)	171.3(0.6)	160.0(0.6)	169.1(-1.3)
부동산업	171.8(-0.8)	169.4(-1.4)	168.6(-1.3)	176.6(-0.6)	167.6(-0.6)	174.7(-1.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1.6(-0.1)	160.3(-0.8)	159.6(-0.5)	172.0(0.4)	159.3(-0.2)	170.3(-1.0)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2.1(0.2)	159.8(-1.4)	159.0(-1.2)	167.9(-0.4)	158.4(-0.4)	166.7(-0.7)
교육서비스업	137.2(0.4)	136.1(-0.8)	135.4(-0.6)	145.3(-0.1)	136.2(0.6)	145.4(0.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8.3(-0.2)	155.3(-1.9)	154.6(-1.6)	164.1(-1.3)	151.0(-2.3)	159.2(-3.0)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2.7(2.0)	150.8(-1.2)	150.3(-1.1)	157.4(-0.9)	148.7(-1.1)	154.8(-1.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2.4(1.3)	160.3(-1.3)	159.4(-1.1)	168.5(-0.3)	160.5(0.7)	168.8(0.2)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0건
 - －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5건)보다 15건 적은 수치임.
- 2024년 1월 조정성립률 0.0%
 - － 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66.7%보다 66.7%p 낮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1	0	0	0	0	0	0	0	0	0	0	0	0.0
2023. 1	15	7	2	1	1	1	0	1	1	3	7	66.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0건
 - － 1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건)보다 낮은 수치임.
 -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0건임.

〈표 2〉 2023년, 2024년 1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1	0	0	0	0	0	0
2023. 1	4	3	3	0	0	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0건
 - 1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583건)보다 583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0.0%(0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1	0	0	0	0	0	0	0	0	0
2023. 1	583	149	25	6	80	8	16	14	43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0건
 - 1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2건)보다 1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0.0%(0건)를 차지함.

〈표 4〉 2021년, 2023년 7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1	0	0	0	0	0	0	0	0	0
2023. 1	12	4	2	0	2	0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경사노위, 본위원회 열고 대화 의제 확정

-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음.
-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음.
-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의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크게 세 가지로 합의했음.
- 이들 의제를 논의할 위원회 명칭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정했음.
-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장시간 노동 해소를 통한 일·생활 균형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방안 등을 다루기로 했음.
-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한국노총이 원하는 법적 정년연장, 노동부·경영계가 원하는 계속고용 등을 두고 논의를 하기로 함.
-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기로 함.
-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6명을 신규 위촉했음.
- 노동자 대표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청년)·박현호 경기비정규직 지원센터 소장(비정규직), 사용자 대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은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임.

〈표 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개 위원회 개요

	위원회명	논의의제
특별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지원 확충방안

자료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출범

- 1월 31일 삼성그룹 내 4개 계열사 노조가 모인 ‘삼성기업 초기업 노동조합’이 제1회 조합원 총회를 열고 내부적인 출범 선언과 규약 개정 등을 했다고 밝혔다.
- 통합 노조에는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 삼성화재 ‘리본 노조’, 삼성디스플레이 ‘열린 노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 노조’ 등이 참가했음.
- 지난해 12월 말 DX노조는 임시총회를 열고 초기업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80%가 넘는 찬성표를 받았음.
- 삼성전자에는 DX를 비롯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 삼성전자 구미 노조, 삼성전자노조 동행 등 5개 노조가 있음.
- 이 중 조합원이 가장 많은 전삼노(1만여 명)가 사측과 단체협약이나 임금교섭을 할 수 있는 대표노조임.
- 노조는 기본인상률(Base-up) 8.1%를 포함해 격려금 기본급 200% 지급,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100% 지급과, 노조·회사 창립일 유급휴일 신설, 의료비 인상,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복리후생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표 6〉 삼성전자 통합노조 구성

계열사 노조	조합원수	찬성률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	6천여 명	86.0%
삼성화재 ‘리본노조’	3천여 명	90.0%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조’	3천여 명	96.1%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1천600여 명	99.5%
통합노조	1만 3천여 명	

자료 : 중앙일보.

◆ 타임오프 위반 109곳 적발, 86% 시정지시 완료

- 1월 18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운영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2개 사업장 가운데 109개소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감독결과에 따르면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023년 9월 18일~10월 13일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음.
- 세부 위반 사항을 보면 △부당노동행위(불법 운영비 원조 등) 99건(61%) △단체협약 미신고 30건(20%) △위법한 단체협약 17건(12%) △기타 10건(7%) 등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음.

- 공공기관은 △부당노동행위 33건 △단체협약 관련 위반 22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7건 등이었음. 민간기업은 △부당노동행위 66건 △단체협약 관련 위반 26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2건 등임.
- 정부는 올해 민간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의 주요업종과 1,0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 확대할 계획임.

◆ 모성보호 위반 처벌 6.8%

- 2월 7일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실을 통해 2019~2023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모성보호제도 관련 신고 처리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육아 관련 4대 법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2,335건 중 사업주가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전체의 6.8%에 그쳤다고 밝혔음.
- 4대 법 조항은 △출산휴가 △출산 전후 여성 해고 금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음.
- 4대 법 조항 중 위반 시 처벌률이 그나마 높은 것은 출산휴가 관련 조항이었음. 근로기준법 74조는 90일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 휴가 부여 의무, 출산휴가 종료 후 복직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처리 현황에 따르면 5년간 해당 조항 위반으로 접수된 394건 중 처벌 건수는 46건(기소 45건·과태료 1건)으로 11.6%였고, 시정 조치는 29건(7.3%)이었음. 나머지 316건(80.2%)은 신고 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각하 등으로 제재 없이 종결 처리됐음.
- 출산 전후 여성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차 쉬는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위반 신고 690건 중 70건(10.1%)만 처벌됐음.
-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항 처벌률은 더 낮았음.
- 육아휴직 부여 의무와 불이익 금지 조항(19조)을 위반했다고 신고된 1,078건 중 처벌 건수는 38건(3.5%)이었음. 여기에 시정 조치 104건(9.6%)을 제외한 923건(85.6%)이 제재 없이 종결됐음.
- 8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근로시간을 줄여 육아에 쓸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19조 2항)는 법 위반 신고 173건 중 처벌 건수가 5건(2.8%)뿐이었음.

◆ 민간재해예방기관 10곳 중 3곳 미흡 또는 불량

- 1월 25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12개 분야 민간재해예방기관 1,34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음.
- 평가 결과 S등급(매우 우수)이 128곳, A등급(우수)이 390곳, B등급(보통)이 425곳, C등급(미흡)이 229곳, D등급(불량)이 140곳인 것으로 나타났음.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이 없는 기관은 29곳이었음.
-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기관 비율은 2018년 30.5%에서 2021년 43.4%, 지난해 48.1%로 꾸준히 증가했음.
- 노동부는 평가등급과 연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 기관평가 결과 공표 시기도 기존에 평가를 실시한 다음 해에 발표하던 것을 당해 연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임.

◆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10명 중 8명 “냉·난방 시설 설치해야”

- 1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 민병조)는 물류센터 노동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지부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물류센터에서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96%(복수응답)는 소음, 80%는 더위와 먼지를 꼽았음. 73%는 추위를 선택했음.
- 근골격계 질환은 92%가 있다고 답했고, 근육통을 앓는다고 밝힌 노동자도 93%나 됐음. 90%는 피곤함을 자주 느낀다고 했음.
- 관리자에게서 구타 등의 위협을 느낀 응답자가 6%였고, 28%는 인격적 무시나 감정적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음.
-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선할 사항으로는 냉·난방 시설의 설치(81%)를 가장 많이 선택했음. 환기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답한 노동자도 78%나 됐음.

◆ 지난 10년간 위험직무 수행 중 소방관 42명 순직

- 2월 2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4~2023년 순직한 소방관은 40명으로 집계됐음. 지난달 31일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를 포함하면

- 42명임.
- 직무별로 보면 화재진압(13명) 과정에서 희생이 가장 많았고, 항공(10명)과 구조(6명), 생활안전(5명), 교육훈련(3명), 구급(1명) 순이었음.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도 2명임.
 - 연도별로는 2014년 7명, 2015년·2016년·2017년엔 각각 2명,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2명임.
 -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상을 당한 소방관도 8,200여 명에 달함.

〈표 7〉 위험직무 순직 현황(최근 10년)

(발생일 기준)

근무유형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40	7	2	2	2	7	9	2	3	4	2
화재진압	13	1	1		2		1		3	3	2
구조	6			2		2		2			
구급	1					1					
생활안전	5		1			3	1				
항공	10	5					5				
교육훈련	3	1				1	1				
자살	2						1			1	
기타	0										

자료 : 소방청.

◆ 비자발적 실직자 2명 중 1명 실업급여 못 받아

- 1월 21일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실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12.3%로 조사됐음.
- 실직 경험자를 특성별로 살펴봤더니 비정규직(20.5%), 5명 미만 사업장(17.5%),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16.2%), 비조합원(13.3%)에서 비율이 높았음. 실직자 중 정규직은 6.8%였음.
- 실직 유형은 해고(9.8%), 권고사직·희망퇴직(28.5%), 계약기간 만료(35.8%)와 같은 비자발적 유형에서 많았음. 이는 실직자 10명 중 7명 이상(74.1%)이 비자발적으로 일터를 떠났다는 얘기임.
-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54.9%로 나타났고, 전체 직장인의 51.4%는 실직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음.

-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동의한다”는 응답(36%)보다 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 비정규직 10명 중 6명 “우울하거나 희망 없다”

- 1월 28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주간 정신 상태(우울)를 점검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설문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점수는 5.62점으로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있었음.
-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는 4.64점이었음.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응답자들의 우울 척도 평균 점수는 8.23점이었음.
- 직장인 10명 중 2명(20%)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혹은 자해할 생각을 했다’고 답했음.
-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등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음.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꼈다’는 답은 정규직이 45.5%, 비정규직이 59.3%였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1.2%,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44.3%였음.
- 설문은 우울증 선별검사(PHQ-9)를 기반으로 했음. 응답 합산점수 20~27점은 심한 우울증 의심, 10~19점은 중간 정도의 우울증 의심, 5~9점은 가벼운 우울 증상, 0~4점은 우울 증상이 없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